‘6·2지방선거’ 20대 유권자들의 목소리

“취업걱정 없이 살게 해주세요”

지난 20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서울·경기지역 대학생들로 구성된 참여연대 ‘휴먼파탈’ 회원들이 20대의 선거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참여연대 ‘휴먼파탈’ 회원들 선거참여 캠페인

대학생 등록금 인하·시내버스료 할인 요구도

“(광주시장 당선되면) 등록금 좀 낮춰주세요. 부모님 허리 휩니다. 제발 취업걱정 없이 살게 해주세요.”

광주지역 대학생과 20대 유권자들의 6·2지방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바람은 취업난 해소와 대학등록금 인하 등 현실적인 문제가 주를 이뤘다.

이와 함께 지하철 노선 확대와 문화도시 건설 등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에 집중해주길 바라는 적극적인 목소리도 높았다.

지난 20일 오후 2시 전남대학교 후문 앞. 참여연대 소속 서울·경기지역 대학생들로 구성된 ‘휴먼파탈’ 회원들이 거리를 오가는 대학생을 비롯한 20대들에게 “지방선거를 앞둔 20대의 요구사항을 써달라”며 핑크빛 A4용지를 내밀었다.

이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시장님도 토익 900점 넘으세요”, “대학 등록금 300원”이라는 다소 황당(?)하면서도 20대의 눈길을 사로잡는 문구도 담겨 있었다.

광주지역 20대 유권자들은 ‘휴먼파탈’ 회원들이 배포한 A4용지에 ▲대학등록금 인하(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지역 인재 채용 우선 ▲대학생도 버스요금 할인 ▲지하철 노선 확대 ▲야구장 신설 문제 등 6·2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바라는 요구안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5·18 민중항쟁 30주기 의미를 잘 살려달라(현진·24)”, “광주는 문화의 도시. 이에 걸맞은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달라(정해균·27)”는 등의 의견도 나왔다.

“여천공단은 지역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인데 왜 지역인재 채용에는 관심이 없느냐”는 전남지역 대학생의 지적도 있었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준호(25·경기 군포시)씨 등 서울·경기권 대학생 7명으로 구성된 참여연대 20대 정치 캠페인팀 ‘휴먼파탈’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28일부터 최근까지 서울지역 20대들로부터 요구안을 받은 데 이어 지방 중에선 이날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 했다.

이들이 캠페인을 벌이는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전 연령층을 통틀어 가장 저조한 20대의 투표율 (2006년 지방선거 22.9%, 18대(2008년) 총선 28.5%)을 끌어올리고 정치 운동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이른바 ‘운동권식 선거운동’은 생명력을 잃은 만큼 변화된 ‘운동’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캠페인팀 김나래(여·21)씨는 “서울의 20대들이 대체로 가볍게 요구안을 적는 분위기인 반면 민주의 도시에 사는 광주 젊은이들은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다”고 말했다.

‘휴먼파탈’은 민주의 도시와 국내 제 2의 도시라는 상징성을 염두에 두고 지방 캠페인 도시를 광주와 부산으로 정했다.

한편 ‘휴먼파탈’은 서울과 광주, 부산(21일)을 돌며 수렴한 ‘20대의 요구안’을 오는 26일 각 정당에 전달하는 한편 이를 기초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후속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 모든 초·중·고 ‘5·18 교과서’ 보급

재량활동 시간에 활용 … ‘전국화’도 본격 추진

5·18 민중항쟁 30주년인 올해부터 광주지역 모든 초·중·고교에 ‘5·18 인정 교과서’가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교육청은 “올해 모든 학교에 5·18 교과서를 보급할 계획으로 책을 발간한 5·18 기념재단과 세부사항을 협의 중이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광주 일선 학교에서 5·18 교과서를 배우고 있는 곳은 금호초교와 광주자연과학고 등 13곳이며, 보급된 수량은 6천여권이다.

올해 5·18 교과서는 광주지역 300여개 초·중·고교에 학교규모에 따라 1~2학급(40권~80권)분이 보급될 예정이며, 학교에서는 재량활동 시간 등에 이 교과서를 활용하게 된다.

시 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과서 구입 예산을 조만간 확보해 5·18 기념일 이전에 일선 학교에 보급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또한 5·18의 공교육 확대를 위해 비아초교와 신가중 등 2곳을 올해 처음으로 5·18 연구시범학교로 지정했으며, 각급 학교에서 추진하는 5·18 교육 정신 계승을 위한 백일장, 체험활동 등에 대해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18 공교육의 전국화도 가시화되고 있다.

5·18재단 관계자는 “인정 교과서와 5·18 수업에 대한 문의가 경기도와 제주도 등지에서 접수되고 있다”면서 “5·18 30주년인 올해를 기점으로 5·18 교육의 전국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월 초등과 중·고등학교용 2권으로 편찬된 5·18 교과서는 5·18 기념재단이 제작 실무를 맡고, 지역 초·중등 교사 11명이 집필에 참여, 3년만에 발간됐다.

초등학생용은 5.18민주화운동 전개과정, 5·18에 담긴 정신, 함께하는 5·18 등 3단원으로, 중·고등학생용은 나와 5·18, 5·18과 문화, 5·18 정신 이어받기, 아시아의 광주, 세계속의 5·18 등 5단원으로 이뤄져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3명·전남 4명 교장공모제로 임용

교육과학기술부는 “제6차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계획에 따라 광주 3명, 전남 4명 등 전국에서 134명의 교장 임용자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실시된 교장공모 절차에 따라 선정됐으며,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2014년 2월28일까지 4년이다.

광주는 목련초 윤완근, 산월초 박민선, 산정중 송정기 교장 등 3명이며, 전남은 장흥 안양동초 전계준, 해남 현산초 이명현, 고흥 금산중 정영섭, 장흥용산중 문광일 교장 등 4명이다.

한편 교장공모제는 현재 전국 392개 학교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교과부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올해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공모제가 전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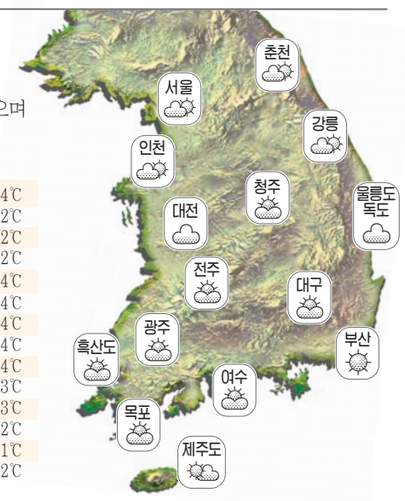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11분 해짐 18시 21분 달뜸 11시 16분 달짐 01시 20분

성큼 다가온 ‘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일교차가 크겠다.

광 주	구름많음	2/14℃
목 포	구름많음	3/12℃
여 수	구름많음	5/12℃
완 도	구름많음	3/12℃
구 례	구름많음	−1/14℃
해 남	구름많음	1/14℃
장 흥	구름많음	1/14℃
고 흥	구름많음	2/14℃
순 천	구름많음	2/14℃
영 광	구름많음	3/13℃
진 도	구름많음	3/13℃
전 주	구름많음	3/12℃
남 원	구름많음	−2/11℃
흑산도	구름많음	6/12℃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먼바다	남서~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0~1.5m
먼바다	남서~서	1.0~1.5m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낮음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0.5m
먼바다	서~북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먼바다	서~북서	1.0~1.5m

	밀물	썰물
목포	07:22 19:20	12:40 --:--
여수	02:04 13:39	08:01 20:37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3(화)	24(수)	25(목)	26(금)	27(토)	28(일)
날 씨						
최저/최고	1/17	7/18	11/16	10/14	8/13	5/12

법원 “유전성 질환 몰랐어도 보험금 못 받아”

자신의 유전성 질환을 모른 채 보험에 들고 나서 질병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금을 탈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이은애 부장판사)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김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계약 당시 김씨가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해 계약이 유효라고 해도 흥국화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금을 받으려면 마르팡증후군(Marfan‘s syndrome)으로 인한 대동맥확장증이 보험의 책임개시일 이후 발생한 질병이어야 한다”며 “대동맥확장증이 서서히 진행하는 질환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보험기간 개시 이후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7월8일 흥국화재와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3개월 전부터 의사의 진단이나 치료, 수술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흥국화재에 알렸다. 그러나 흥국화재는 유전성 질환인 마르팡증후군의 특성상 계약 이전에 이미 발병해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내줄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